

공무원 연료 재활용 병행원 풍경

부산에 있는 유엔공원과 평화공원 옆
파크사이드 재활의학병원에서 두 번째로 만드는 병원책입니다.

www.parkside.co.kr
blog.naver.com/parksidefoto

처음으로 병원책을 만들 때는
그냥 재미있었고 신이 났었습니다.
두 번째 만드는 책은 많이 조심스러워지고 망설여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책을 만드는 이유를 조금 더
정확한 메시지로 전달하여야 한다는 부담감일 겁니다.
저희가 하고 있고, 살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저희에 대하여 궁금해하신다면 옆에 적혀있는
홈페이지나 블로그로 들어오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은 버리지 마시고 메모장으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박인선



앞으로 나란히 해보세요~ 손을 들어서 쪽 뺏어보세요~
치료사들과 함께 웃으며 치료하는
파크사이드 재활의학병원 물리치료실의 모습입니다.
좀 더 편한 분위기에서 최선을 다해 치료하는
많은 치료사들 덕분에 오늘 하루도 즐겁습니다.



손을 꼭 잡고 눈을 마주칩니다.

서로 쳐다만 보고 있어도 미소가 절로 나옵니다.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고, 미소만 지어도 재활은 반 이상 성공한 것입니다.

물리치료실에 침대가 꽉 찼습니다.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아픈 곳도 다릅니다.

그러나 지금 침대에서 생각하는 한가지는 똑같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환자뿐만 아니라 치료사들의 생각도 똑같습니다.





많은 대화는 상대방을 알아가는데 필수적입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모르는 부분과 잘 아는 부분을 파악하며 서로를 알아갑니다.

이렇게 교감을 나누는 시간이 많아야 더욱 양질의 치료가 될 것입니다.

둘러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몸은 조금 불편할지 몰라도 마음만은 청춘입니다.
이렇게 함께 노래 부르며 춤을 출 수 있는 건 마음이 즐거워서입니다.
모두 함께 신나게 춤을 춰 봅시다.





지하 재활기능치료실 앞에는 이야기 꽃이 피었습니다.

모두들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운동도 하고, 잠시 쉬기도 합니다.

서로 서로 격려하고 어서 빨리 좋아지길 기원합니다.

언어치료실에 계신 정영란 선생님께서 작업치료실까지 놀러오셨군요.
환자분과 웃으며 이야기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치료사들도 항상 웃으며 먼저 다가가려 합니다.
환자분들도 함께 웃으며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웃으면 행복하니까요~ ^^





낮선 남자의 품에 안긴 모습입니다.

회진을 돌면서 환자분들이 의사 선생님의 품으로 파고 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환자분들은 의사에게 본인의 몸을 맡기고, 의사는 그런 환자들을 본인의 몸처럼 돌봅니다.

모두 함께 합심하여 좋은 결과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믿으세요. 본인의 선택을...

워커를 이용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봅시다.
주위에 도와주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본인의 마음에 달렸습니다.
몸이 힘들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더욱 힘을 냅시다.





남남이 만나서 부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서로의 마음을 더욱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부부입니다.

이렇게 웃을 수 있는 남편과 아내가 있어 세상이 더욱 밝은가 봅니다.

옆에서 자꾸 코치가 들어오는군요.
스스로도 할 수 있는데, 아직은 어설피고
서툴러 보여서 그런지 가르쳐 주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옆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모두 다 애정이 넘쳐서 그런가 봅니다.



치료사들과 웃으며 이야기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살아온 이야기, 시시콜콜한 이야기 등,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치료사들이 고맙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치료가 잘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을 합니다.

원장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앞으로 남은 재활이 얼마가 될지 몰라도 약속은 꼭 지킵시다.

활짝 웃는 얼굴만 보아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항상 웃음 띠는 얼굴로 인사를 해주시는 환자분이랍니다.
이렇게 웃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재활치료를 한다 해도 웃게 하는 건 힘이 든답니다.
스스로 웃는 연습을 해봅시다.
거울을 보면서 큰소리로 웃어보세요~ ^^



치료사의 한마디에 환자분은 그저 웃지요.
이렇게 즐겁게 치료를 하다 보면 금방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 꼭 좋아질 겁니다. 치료의 시작은 미소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웃으며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꼭 좋아지니까요. ^^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을까요?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 만큼, 치료방법도 다르고 시간도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 재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크사이드의 목표는 모두 똑같습니다.

사회로 다시 돌아가 본인의 몫을 다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치료사들과 환자분은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고 있는 걸까요?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 보는 사람도 환하게 웃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병원이라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딱딱한 표정만 지을 필요 없습니다.

환한 웃음이 치료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복도에서도 쉬지 않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워커를 이용하여 한걸음 한걸음 걷다 보면 워커가 필요 없어질 때가 오겠죠.

너무 서둘지 않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으니까요.

지금은 저 복도가 길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워커없이 걸어보면 금방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조금만 힘내자구요~ ^^



치료사와 함께 치료 중입니다.

헛갈리는 부분은 치료사가 조금씩 도와드립니다.

치료는 파크사이드에서 하지만, 재활을 하는 건 환자 본인입니다.

항상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재활에 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미소가 아름다운 남자입니다.

환자와 의사가 아닌, 사람과 사람으로서 만나도 참 매력적인 남자입니다.

웃으며 재활치료를 합니다. 함께 얼굴을 보며 웃을 수 있을 때,

그때가 재활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을 때입니다.





모두 함께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좋아지길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지켜보며 애쓰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 잘 찍어달라고 미소를 지어봅니다.

머리는 어떤지 살짝 손으로 만져 다듬어 봅니다.

속스럽다고, 부끄럽다고 피하지 마세요.

사진을 찍혀도 당당하고 멋있게 찍힙시다. ^^



손을 한번 봅시다.

얼마나 열심히 재활치료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좋아졌는지 한번 봅시다.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쓰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U자 평행봉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환자분의 모습입니다.

운동 중 잠시 생각에 잠긴 표정입니다.

이렇게 잠시 쉬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앞만 보고 달리는 것보다, 가끔 뒤를 돌아볼 때도 필요합니다.

지나간 시간을 회상하면서 앞날을 그려봅시다.

분명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요. ^^



바깥에서 지켜보는 보호자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건 단 하나입니다.
환자분을 좋아지게 만드는 것.
그리고 집으로 돌려 보내는 것입니다.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너무 활짝 웃어서 얼굴이 이상해 보이진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웃는 얼굴이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다시 사회로 돌아갈 땐 더 크게 웃어봅시다. ^^





지금은 팔씨름 중. 누가 이길까요?

치료사나 환자분의 팔을 보니 쉽사리 예상할 수가 없군요.

치료사를 이길 때. 그때가 재활이 성공한 것이 아닐까요? ^^

예전에는 피아노를 잘 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전만 못합니다.
그렇다고 아예 못 치는 건 아닙니다. 조금 불편해졌을 뿐입니다.
파크사이드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예전의 기억들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이 흐를 수 있도록 다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슬링을 고쳐잡고 춤을 추고자합니다.

신나게 춤을 추고나면 기분도 상쾌하지만, 몸이 더가뻓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도 저 멀리 날려보냅니다.

꼭 움켜쥔 손잡이처럼 재활의 의지도 움켜지고 놓치지 마세요. ^^



저의 발이 되어주는 고마운 휠체어입니다.
동그란 바퀴를 굴려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항상 나의 옆을 지켜주는 휠체어처럼 파크사이드도 항상 옆에 있겠습니다.

발행인 | 파크사이드 재활의학병원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731-1
Tel. 051-629-8000 Fax. 051-629-8188

발행일 | 2012년 9월

글·사진 | 김원수

편집·인쇄 | 디자인글꼴 www.ggad.co.kr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76-10
Tel. 051-636-1210 Fax. 051-636-1238

 **파크사이드 재활의학병원**
Parkside Rehabilitation Hospital

 **보건복지부지정 재활의학과**
전문병원
SPECIALTY HOSPITAL OF KOREA